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시편 150:1-6)

본편은 할렐루야 시 중 다섯 번째 시로 마지막 시이며, 시편 5권의 권말 송영시로 전 시편의 마지막 송영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어디서, 왜, 어떻게, 누가 찬양할까를 말하는 본 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3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1번, ‘그를 찬양하라’가 9번 나옵니다.

1. 어디서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경륜과 법칙 아래서 유지되고 운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늘과 땅이 총동원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왜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사에서 역사하심을, 지극히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즉 통치, 거룩, 전지, 사랑, 은혜, 선하심, 긍휼, 공의, 진리,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능력의 행사는 천지간에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이고, 열방의 민족들이 다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뿐입니다.

3. 어떻게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합니다. 나팔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또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소와 제금,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엡 5:19).

4. 누가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오늘 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던 원치 않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빌 2:10).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계 5: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합창, 가장 위대한 노래, 가장 큰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salm 150:1-6)

Psalm 150 is the fifth and final Hallelujah Psalm. It is the concluding doxology of the final book among the five main books of the Psalter.

This Psalm tells us where, why, how, and who shoul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appears four times, "Praise God!" one time, and "Praise Him!" nine times.

1. Where to praise Him

Everything that has breath must praise the Lord in the sanctuary of the earth and in His mighty heavens. Since every creature has been created by God, subsumed under His law, and sustained by His administration, it is perfectly natural that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summoned to praise the Lord.

2. Why praise Him

Everything that has breath must praise the Lord for His acts of power and His surpassing greatness. The phrase, "acts of power," refers to the work that God has done in His creation as well as in His salvation. "His surpassing greatness" refers to the sum of God's attributes, in other words, His rule, holiness, omniscience, love, grace, goodness, righteousness, justice, truth, and wisdom.

Nothing can imitate God's acts of power either in heaven or on earth. Although many nations of the world gather together, they amount to nothing before God. Therefore, the only task that human beings must do is praise the Lord. He is endless, and His surpassing greatness is such that we have no way to express sufficient praise.

3. How to praise Him

Everything that has breath must praise Him with all things in their possession. When we have a trumpet, we must praise Him with the trumpet. We must praise the Lord with harp, lyre, tambourine, strings, flute, and anything else that we can utilize. Moreover, we must sing and praise the Lord with new and spiritual songs (Eph 6:19).

4. Who should praise the Lord

Everything (and therefore everyone) that has breath must praise the Lord. Nowadays, people everywhere blaspheme against God, denying Him and ignoring Him. We know that Jesus Christ was also rejected while he was on earth. However, whether they want to or not, one day every person will kneel and bow before Christ (Phil 2:10). Then,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s well as in the sea, will s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praise, honor, glory, and power, forever and ever! Amen!" (Rev 5:13)

My beloved Christians!

The greatest chorus, the greatest song, and the greatest privilege that we have is praising the Lord, our God. While we have breath,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come a people of God who will praise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 2010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오늘부터 교육1국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을 시작으로 계속된다. 금주에는 대학부, 고등부, 사랑부의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열린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심을 얻는 여름성경학교·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 제	강 사
영·유아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예배를 드려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요!	황광 목사
유년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해요	김안성 목사
초등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과 동행해요	서명철 목사
중등부	7.26(일)~7.28(수)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비전	이종운 목사, 장석남 목사, 박종민 목사
고등부	7.22(목)~7.24(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이종운 목사, 유문건 목사, 노현상 목사
사랑부	7.24(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문정훈 목사
대학부	7.21(수)~7.24(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청년	이종운 목사, 노현상 목사, 문정훈 목사, 유문건 목사
청년1부	8.12(목)~8.14(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 - 그 거룩한 길명	이종운 목사, 장석남 목사, 구희숙 목사
청년2부	8.12(목)~8.14(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 - 하나님의 말씀	이종운 목사, 정수길 목사, 유문건 목사, 문정훈 목사
디아스포라	8.6(금)~8.7(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의 기쁨 - 예배의 기쁨	이종운 목사, 박광일 목사
에바다	7.29(목)~7.31(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종운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3(금)~8.14(토)	이기떼타운	결혼, 가정 그리고 기쁨	이종운 목사,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7.30(금)~7.31(토)	이기떼타운	하나님께 영광 - 하나님을 즐거워함	조슈아 조 목사
장년부	10.2(토)	이기떼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년부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7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7월 통독자 명단)
 영어필사 - 11교구 현승희 집사
 4독 - 13교구 김경숙 집사
 2독 - 5교구 이운영 권사
 1독 - 6교구 김희진 권사 16교구 장양일 집사
 13교구 오혜경 집사
 (5월 통독자 명단)
 3독 - 5교구 이운형 권사 11교구 김해수 집사 13교구 김경숙5 집사
 1독 - 1교구 박순자1 권사 1교구 조순엽 권사 5교구 최학인 장로 9교구 이남성 집사 10교구 김재근 집사 12교구 장덕집사 15교구 김혜란 집사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

우리교회는 대치1동사무소와 함께 서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운동인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교회로 가져오면 이를 모아 대치1동사무소에서 가져간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2010말라위 단기선교팀 파송

8월3일(화) ~ 12일(목)

말라위 단기선교팀은 8월3일(화)부터 12일(목)까지 10일간 말라위 제1·2교도소, 마칸디 초등학교에 파송되어 의료 및 전도사역, 미용, 학교장식 등의 봉사를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말라위 단기선교팀은 이번 선교의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0말라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갖는다. 7월4일부터 시작된 바자는 7월 18일, 25일, 8월 1일 까지 8층에서 계속된다. "말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단기선교를 위하여 많은 성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도 : 황광 목사
- 총무 : 박성훈 집사
- 서기 : 김은태 집사
- 주방팀장 : 이자혁 권사
- 학교장식팀장 : 하영숙 집사
- 워십팀장 : 박수진1
- 단원 : 김아리, 최인영, 박선희, 황송애, 최근우, 임현우, 정진영, 김민선, 권신영, 최화미, 오세창, 윤수진, 김연화 집사, 박건희, 김은희1, (의료봉사:안인호 집사, 이지동 집사, 민호영 집사, 정현규, 정아영1, 이주영7, 이선우2(8월6일~12일)) 이상34명
- 단장 : 이강인 집사
- 부총무 : 임형빈
- 회계 : 전하미 집사
- 의료팀장 : 김영주 집사
- 교육팀장 : 박은영1
- 찬양팀장 : 염규빈

금주의 성구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32:28)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Genesis 32:28)

"2010 사랑의 바자"와 함께 올해도 이어지는 서울교회 사랑나눔

8월 한달 간 "사랑나눔A+"운동과 9월 9~10일 양일간 열리는 "2010 사랑의 바자"로 소외된 이웃 곁으로 성금

임상현 장로 (열린바자부장)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 돕기 2010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는 바자위원회는 9월 실시될 바자행사에 앞서 8월 한달 동안 "사랑나눔A+" 캠페인을 통해 이웃사랑실현을 위한 바자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1% 나눔운동

그동안 바자에 동참하고 싶어도 생업으로 인해 바자에 동참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과 기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사랑나눔의 형태로서 유, 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교인 및 외부 기업, 업소에서 8월 수입 중 일부를 약정하여 기부하는 운동으로, 참여한 업소는 순례자 공지 등을 통하여 별도의 홍보지원을 받게 됩니다.

2. 10% 절제운동

청소년들의 핸드폰통화료, 각종 게임방 출입비용, 어른들의 외식비용, 택시비 등 교통비, 가정 전기료, 차량 유류비, 여름휴가비용 등을 절약하여 기부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달 동안 TV 시청이나 불필요한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 불량만화나 영화 및 과시성, 사치성 물품구입 등을 절제하고 그 절제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부모들이 일정액을 바자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 등의 참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독교 생활문화를 유도한다는 의미 또한 큼니다.

3. 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계를 뜨겁게 (사랑의 온도계)

기부를 통한 나눔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숭고한 행위이며 또한 나눔은 나눔수록 커집니다. 8월 한달 동안 매주일 예배 직후 교회 정해진 장소에 설치되는 자선모금함에 성도들 각자가 만원이상 모금에 동참하여 그 모아지는 금액에 비례하여(만원당 1도씩 상승) 사랑의 온도계가 뜨겁

게 달구어지는 행사로서 모아진 성도들 각자의 만원은 이 땅의 장애우들에게 교육을 선물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건축을 위한 벽돌로 변신할 것입니다.

4. 웃장을 비우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더 이상 입지 않아 웃장에 방치된 현 웃을 3점 이상 기증하시는 운동으로서 기증된 의류는 바자 기간 중 재활용 의류로 판매합니다. 자원나눔, 환경오염, 폐기비용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에 더하여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던 자원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위 1.2의 '1% 나눔운동'과 '10% 절제운동'에 동참할 분들은 주보삽지로 제공되는 사랑나눔 약정서 중 자신이 동참할 부분을 기재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국 또는 헌금함을 통하여 교회에 제출한 후(참여한 분들에게는 업소 또는 개인부착용 스티커를 발송할 예정임) 약속대로 8월 한달 동안 힘써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장로교의 날

'2010 장로교의 날' - 성숙한 장로교회



2012년 9월 '1교단 다체제 연합' 의 원년이 되도록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28개 장로교단 6000여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제 2 회 '장로교의 날' 을 기념하며 연합 예배를 드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는 지난 해 장로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그의 탄생일인 7월 10일을 '장로교의 날' 로 선포하고 첫 행사로 '연합과 일치' 를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린바, 올해 '성숙한 장로교회' 를 주제로 제 2 회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날 각 교단의 총회장들은 '대회 실천강령 선언 및 제안' 을 함께 결의하며 연합된 기구를 넘어 하나의 장로교단으로 나아가 갈 것을 다짐했고, 한장총은 2012년 9월 장로교단 총회를 '1교단 다체제 연합' 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총 4부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한 후 성숙한 장로교회를 선언 했고, 이어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가졌다.

대회장이며 한장총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도 선함이 가득한 교회, 지식이 가득한 교회, 서로 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목사가 7계명을 어기고 살인했다. 장로는 도둑질 하고, 집사는 사기꾼이 되고, 권사는 거짓 증인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이나 타 종교가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이다."라고 뜨거운 참회의 설교를 하며 "예배는 점점 타락 해가고, 교회가 구원이 요청되는 세상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상업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에게 영적 진리를 말해주고 매일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사랑을 나타내야 하며 다투기보다 연합해야 한다"고 요한 칼빈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다.

폐회식에서 주최측은 한국장로교 연합의 비전을 제시

하며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두움을 넘어 빛으로 나아갈 것과 헌신할 것을 선포하고 7개항의 실천강령선언과, '1교단 다체제의 연합' 을 포함한 5가지를 교단에 제안하며 28개 장로교단만이라도 올해 9월 총회부터 준비해서 2012년 9월까지 '1교단 다체제 연합체' 를 완성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2012년 1교단 다체제 총회의 연합개회예배를 드린 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의 장로교단 설립을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자고 했다. '1교단 다체제 연합' 은 단일교단을 만들어 세력을 과시 하려

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완전 통합은 어렵지만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분야별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날 행사에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 장로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28개 교단 총회장장과 총무들은 단 위로 올라와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라고 서로 얼싸안고 지난 날을 회개하며 장로교 대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교회 정치의 벽을 뛰어넘어 모든 기독교계와 사회에 그 책임을 다하며 연합과 일치의 칼빈 정신을 계승하여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후손에 길이 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여름 수련회 초정의 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비전

박영수 집사(중등부 차장)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벌써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

방학을 맞습니다.

저희 중등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비전"이란 주제로 7월26일(월)~7월28일(수)까지 아가페 타운에서 2010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지친 심신의 휴식과 더불어 유난히도 학업열이 높은 대치 지역에서 뒤쳐지고 모자란 공부를 보충하기에 아주 중요한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영혼구원과 신앙성장을 위한 영적인 도전의 기회로 여름수련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물놀이 등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과 함께 DISC 성격검사를 통해 중등부 학생들 자신에 대해 알고 타인을 이해하고 섬기는 능력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아 주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 새가족부 수료 소감

신실함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김명경 성도(1교구)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주일 학교 때부터 교회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대학부에서 신앙훈련도 받고 찬양대 활동도 하면서 평범하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후 결혼 하고 두 아이에게 유아세례도 받게하고, 비록 남편이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주일을 성수하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믿음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 형식적이 되어갔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을 유지하기보다는 내 판단과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맘속으로 간구하고 찬송과 예배시간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대치동으로 4년전 이사를 오면서도 막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지?'라며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웠고 주님의 인도하심마저 희미한 믿음으로 멀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견고하고 깊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서울교회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근처로 이사온 터에 가까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봉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한 2009년12월의 첫 예배에서 주님은 강력한 말씀으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감사하자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내힘으로 뭔가를 붙잡고 해결하려는 마음을 주님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첫 예배 때 등록하리라는 결심이 생겼고 강권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의지하며 서울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8주간의 새가족 모임에서 대학부 신앙생활때 느꼈던 신앙공동체의 따뜻한 울타리를 느끼게 되었고 교사 권사님과 집사님의 관심과 인도로 서울교회에 더욱 빨리 마음 문을 열게되었습니다. 이어서 연결된 신앙강좌 말씀공부를 통해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가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헬시바 중창단의 찬양으로 드린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정윤용집사의 지휘와 박승기성도의 피아노 반주로 '사랑의 주 예수(J.M.Martin), 지휘자가 작곡한 '예수 내 구주', '굳건한 반석' 등 다섯곡으로 찬양드린다.

며 주님의 신실함과 말씀의 완벽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예배 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되었는데 영어에 관심이 있는 저에게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미래에 대한 힘겨움으로 마음 고생을 하던 제가 이제는 서울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강권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여러 풍랑기운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믿음의 배가 되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9일(월) 광진구 광장동 124번지, 현대리버빌 B-302호로 이사한다. 베트남 선교회 월례모임 설교한다. 22일(목) 장로교의 날 행사 평가회를 갖는다. 23일(금) 일본 고베 성서공회 회원들 서울교회 방문서 특강한다.

■ 득녀: 김태원 성도 조상희 성도(8교구)
 ■ 학위취득: 윤영남 권사(10교구)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 박사
 ■ 이사: 심근섭 집사 정수는 집사(7교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17번지 신안인스빌아파트 2321동 1704호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7.18) 뱀뽀전도회(7.25)
 ■ 금주의 식사: 천기성 집사 박천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 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초대이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계홍 집사(사랑부 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2010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옴의 신앙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고 찬송하는 사랑부 학생들의 신앙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기쁘게 찬양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열심히, 쉬지 않고 풍나물에 물을 주듯 저

들을 위해 반복학습을 하며 보듬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열심히 기도를 먹고 자라는 사랑부 친구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위하여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